

8/14/16

설교 제목: 언약과구속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창세기 12:1-3, 창세가 15:6-12,17, 갈라디아서 4:4-7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5: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창 15: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 15: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창 15: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 15:1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창 15: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창 15: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 4: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 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 4: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는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가 진실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혼란스러운 교인들에게 누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부채질에 협박?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이 왔다갔다 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잃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불안하십니까?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절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잃어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이자 인간 쪽에서 파기할 수 없는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를 택하셔서 이런 사랑의 언약을 맺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다함이 없는, 그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율법과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두 번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아주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인간 구속에 대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세상으로 내려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들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언약을 가리켜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엡 1: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엡 1: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에게 살도록 하시면서 아담에게 아담이 지켜야 할 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아담의 행위가 요구되는 행위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아담을 인류의 머리요, 대표로 해서 인류 전체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언약대로 영이 죽게 되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죄의 삯으로 죽어야만 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최초의 은혜 언약, 복음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인간 쪽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실 언약이기에 행위 언약과 대비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실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5: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자손(이스라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땅(가나안 땅,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창 15: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 15: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창 15: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 15: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 지나  
지나 가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실 것이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쌍방 동등의 언약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피의 맹세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면 살고 안지키면 죽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이 언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창세기 3:15 에 나오는 은혜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에 더하여 주어진 잠정적이고, 외부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맺은 언약인 이 언약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과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둘 다를 맺으십니다.

(삼하 7: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삼하 7:13)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삼하 7: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삼하 7: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삼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 89:31)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시 89:32)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시 89:33)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시 89:34)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 89:35)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 89:36)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시 89:37)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다윗의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자손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언약은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위 언약도 있습니다.

(삼하 7: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시 89:31)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시 89:32)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였고,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앗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예수살렘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즉 은혜 언약이 계속 유효했던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율법이라면 은혜 언약은 복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의 구속 언약에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 4: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율법 아래 나셔야 했습니다.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 5:8,9)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부터 죽으심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한 마디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창세 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이 언약, 복음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언약이지만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불순종함으로써 영생의 유업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머리요, 언약적 대표로서 첫째 아담의 불순종이 초래한 죄의 형벌을 완전하게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한 아담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사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얻으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을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렘 31:3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렘 31: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관주** 출 19:5, 요 1:17

(렘 31: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 9: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 언약인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이미 왔고 오고 있으며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위 언약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도록 비천함을 겪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셔야 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신 창조주께서 율법 아래 나서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위 언약의 성취라는 근거 위에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하에서 신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에서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자 사이에 맺으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신자 사이에 맺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혹시 구원을 잃어 버릴까 쓸데없이 두려워 마시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